

제 87 호

연중 제 17 주일

(강림 후 7)

1974. 7. 28.

숲정이

발행인	김영일
인세인	합승권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3498)



【강론】

거꾸로된 세상

서석구 신부

토마스 칼라일의 이야기 중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가두연설가가 지나가는 행인들을 모아놓고 “이 세상 모든 것이 거꾸로 뒤집혔다. 인간도, 나무도, 짐들도, 그밖의 모든것이 다 거꾸로 섰다”고 열을 울리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이때에 그의 연설을 듣고 있던 청중 한사람이 연설가를 반씩 들어 머리가 땅으로가게 거꾸로 세웠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머리가 뒤집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바로 섰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대로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 것입니까? 더군다나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오늘날의 우리들의 사는 모양을 보신다면 오늘날의 사물의 돌아가는 꼴을 보시고 얼마나 한탄하실 것인가 생각해 봅시다.

요즘과 같이 사회가 혼란하고 저마다 애국자인척 하는 시대에 누가 애국자고 누가 진정으로 인간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분간하기 힘들습니다. “나무마다 그 열매로써 알 수 있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다시한번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심판해 줄 것입니다.

역사는 항상 우리를 기억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현세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이 거센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참과 거짓을 분간하며 선과 악을 가려낼 수 있는가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고민이요 또한 의문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무어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양심의 명령을 받고도 나의 조그마한 인간의 나약함에 무관심하지는 않는지? 양심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을 받은 우리는 실천으로 행해야 합니다. 양심의 명령대로 따를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늘진골짜기를 간다해도 당신함께 계시니 두려울 것 없다”고 노래 했습니다. 또한 시편 121에서는 “눈을 들어 산을보라, 나의 도움이 어찌서울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오시도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우리의 양심은 누구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사막에서 가끔 떠오르는 신자루는 거꾸로 보이는 법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속이는 비실재(非實在)와 미망(迷妄)의 세계는 거꾸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런것에 속지말고 진실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중앙성당 보좌신부)

* 이 주일의 미사 *

(1) 개회식

□입당송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 그 집에 살게하시나니, 당신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리라.

(2) 말씀의 전례

□제1독서 (창세기 18 : 20-32, 경향잡지 7월호 P. 69) 주여 말씀드려도 분노하지 마옵소서.

□찬송가 297번 주님을 부르는 날, 주여 내게 응답해 주소서.

어지심과 진실하심 우러르며 당신 이름을 찬양하오리니, 주님을 부르던 날 당신은 내게 응답하시고 내 영혼의 힘을 북돋아 주셨나이다. ◎

□제2독서 (골로사서 2 : 12-14, 성서 P. 459)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성신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신에 힘입어 하나님을 아با, 아버지라 부르노라 알렐루야.

□복음 (루카 11 : 1-13, 성서 P. 158) 청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신자들의 기도

1. 주여, 당신은 잡히던 날 동산에서 기도를 바치고 내려오시어 제자들을 나무라셨습니다. “너 나와 함께 한 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고. 한국의 주교단, 사제들, 수도자들, 평신자들이 모두 한가지로 뭉쳐 깨어있게 하소서. ◎주여

2. 주여,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된 이를 용서해 주어야 당신께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당신이 친히 지어 주신 주의 기도를 늘 바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들은 남을 용서해 주기에 인색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소서. ◎

+ 주여 비오니, 우리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에게 건강과 같은 용기, 총명한 지혜와 너그러운 마음을 주소서. 우리주.....◎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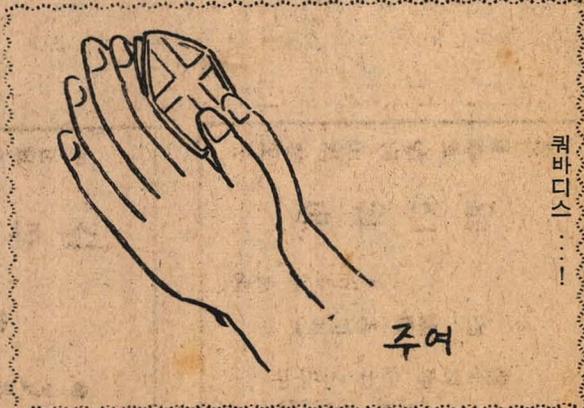
(3) 성찬의 전례

□성찬식 □봉헌

□영성체송 행복하여라,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받으리니,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뵈오리니.

(4) 폐회식

* 숲정이 산책 *



퀴바디스...!



서로 이해하는 삶

한 길섭 <고스마>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

위로 받기 보다는 위로하고
이해 받기 보다는 이해하라”

어느 곳에 이웃간에 사는 두 집이 있었습니다.
그 한 집에는 아이가 없는 중년부부가 살고 있었습니
다. 어찌된 일인지 그 부부들 사이에는 싸움이 그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소한 일이 원인이 되어 마구 욕지거리를
퍼부으면서 불유쾌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옆집에는 대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이 집에서는 이제까지 싸우는 소리가 들려 본 적이 없었
습니다. 언제 보아도 온 집안이 싱글벙글 웃는 낮이며,
보기에도 아주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일과처럼 하고 있는 이웃집 부부
는 대체 어떻게 그 많은 식구들이 매일 매일 싸움 한번
하지 않고 살아가는지 그 비결을 배우러 갔습니다. 옆집
주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네 집에서 싸움이 그치
지 않는것은 두분께서 다 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
리집에 싸움이 없는 것은 모두가 악한 사람만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놀라서 반문했습니다.

“착한 사람만 사는집에 싸움이 있고 악한 사람만 모인
집에 싸움이 없다는것은 대체 어떠한 뜻입니까?”

“예, 가령 내가 방 한가운데에 놓여있던 물그릇을 모
르고 둘러 었었다고 합시다. 이때 나는“내가 부주의해서
그랬으니 내가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 아내는
“아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라 빨리 치우지 않은 제가
잘못이어요!”합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아니다. 나
잇살이나 먹은 내가 옆에 있으면서도 그걸 그대로 보고
만 있었으니, 내 잘못이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자
진해서 나쁜 사람이 되려고하니 싸움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이 말을 듣고 있던 옆집 주인은 그제서
야 얼굴을 끄덕였습니다.

대단히 진부한 이야기를 드린것 같습니 다만 의외에도
이야기에는 커다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요사이 현대 사회생활에서 나를 이해 해주지 않는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결점을 지니고 있
으면서도 어떻게 이해해주기만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받
기 전에 이해해주어야 하였습니다.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교회안에서의 모든 생활이 다 그러해야 하였습니다.
(비둘기 썸 회원)



산아제한 반대

김준님 <루치아>

가톨릭 교리에 어긋나는 산아제한 문제가 우리 한국을
석권한지도 어언 십년이 넘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교황성하의 반대 메시지가 보내졌고, 주
교님들의 반대 결의가 있어, 우리 천주교 신자만이라도
이 죄악에 물들지 말라고 권고해 왔지만,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도 역시 이 죄악을 범하고 있
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어린애를 제한하지 않고 낳는 가
정이 천에 하나도 드물고 여자들은 어머니 노릇하기보다
는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자신의 안이와 미를 추구하기에
급급합니다.

또한 젊은이들은 사회 율리와 도덕의 기준을 흔들어
놓을 정도로 보편화 되고 표면화된 타락상을 보입니다.
옛날 구약 시대였습니다. “룻”이라는 성인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곡식이 풍요한 “소돔과 고모라”에 와서
정착하였습니다. 그 곳에는 종교와 풍속이 다른 이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개의 민족이 이 도시에서 생활하다
보니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민족을 정신적으로 교
화하려 하였으나 이민족의 정신문명이 알고 성도덕이 문
란하였는 모양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오히려 그들에게 동
화 흡수되어 나쁜 물에 젖어버리고 타락하여 버립니다.

하느님은 천사를 “룻”에게 보내서 죄악이 가득찬 이도
시를 멸망시키겠다고 하였고, 단 성인이 백명만 있으면
구해주시겠노라고 하십니다. “룻”은 성인 열명만 있으면
구해달라고 애원하여 허락을 받았습니다.

“룻”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였으나 이미 정신이 흐려
지고 하느님의 이름을 잊은지 오래인 이들은 “룻”의 말
을 의면하여 버립니다. 단 한사람도 하느님의 이름을 부
르며 회개하는 자를 찾지 못한 “룻”은 두 딸과 아내를 데
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고 “룻”의 이
방인 아내가 피난하면서 뒤를 돌아다 보자 “죄에 미련있
는 자”라 하여 저주를 보내니 그녀는 그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죄악이 가득하고 더러운 음의 도시에 천주 진노하시교
재앙과 형벌로써 다스리신 일은 구약성경에도 수차례 나
옵니다.

죄를 모르던 우리 민족 위에 산아제한이나 모자보건법
이라는 슬로전 밑에서 무수한 유아의 살해와 말살의 죄
가 범람한지 십년이 넘고 그여파로 성도덕이 땅에 떨어
졌으니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형벌이 우리에게 떨어지
지 않을가 하는 정도까지 왔습니다.

옛부터 마음이 깨끗하여 하느님의 특은을 입었다 하는
우리 흰옷입은 백성이 오늘날은 현실에 처해 있음을 보
시고 하느님은 마음아프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톨릭만이라도 회개하여 성모님과 함께 목
주신공을 많이 바쳐 우리 민족이 마음의 흰옷을 다시 입
을 때가 오기를 고대합니다.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태(베드로)

☎우교열 중앙 시장동
(전화 ㉠4577)

✽교향 여러분의 집✽

스타 사진관

장남수(바오로)

● 오거리동, 동아여관 앞
전화 ㉠ 6094

☆ 추억의 집 ☆

푸른 사진관

이준영(모세)

○전동, 성모병원 건너편
전화 ㉠ 6059

□ 기 도 문 □



하느님 아버지께

헬터 까마라 대주교

우리는 기도중에
은 인류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아드님이시요
우리의 형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시대, 모든 곳의
모든 사람을 위해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하오나 주여,
내가 나의 공포, 곧
침묵의 세계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드릴을
용서하소서.
가난한 나라뿐 아니라,
부유한 나라들의 빈민窟에는
자유로이 발언할 권리도 없고,
이익을 제기하거나
항의를 할 수도 없는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변명하고 싶은 일이
정당하더라도
그들은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합니다.

집과
벽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사람들,

영양 실조에
최소한의 교육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일자리와
장래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속명론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의기 소침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소리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과,
갖가지 종교에서
하느님 아버지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부유한 형제들을 도와서
그들의 양심을 일깨워 주었더라면,
부정 불의가
이렇게는 만연하지 않았을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
집단과 집단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
심지어 대륙들 사이에도
빈부의 격차가
그렇게 벌어지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차호계속) <브라질 대주교>

요십이 (54) 김병호



좋은 책을 많이 읽으면
인생을 몇배 더 잘 살
수 있다.

✽성 바오로 서원
T.2~7398

이 주간의 성경

- 29<월> 성녀 마르타 기념
독서 (요한1서 4:7-16, 성서 P.548)
복음 (요한 11:19-27, 성서 P.234)
- 30<화> 독서 (예레미야 14:17-22)
복음 (마태오 13:36-43, 성서 P.32)
- 31<수> 성 이나시오 로울라 사제 기념
독서 (고린트전서 10:31-11:1 성서 P.388)

- 복음 (루카 14:25-33, 성서 P.171)
- 1<목> 성 알폰소 리고리오 주교 학자 기념
독서 (로마서 8:1-4, 성서, P.351)
복음 (마태오 5:13-19, 성서 P.8)
- 2<금> 독서 (예레미야 26:1-9)
복음 (마태오 13:54-58, 성서 P.33)
- 3<토> 독서 (예레미야 26:11-16, 24)
복음 (마태오 14:1-12, 성서 P.33)

☆집필도장청부 ※ 고급실크벽지☆

대동 페인트 상사 대동 지업사

● 동문 베거리 (풍남동 1가 17)
전화 ⑤986
임 도민교 (정원)

고급 선물용, 케익, 빵, 파자, 찹쌀떡
◎교우들에게 특별 할인◎

미미 제과소

상업은행 옆 (⑥589)

미미 예식장
남문 옆 (⑥3915)
김민주 (가타리나)

장의차 · 꽃상여 · 입관 입관부속
일체 구비

최 씨 관 집

◎ 교우들에게 특별별가 봉사 ◎
최 병 화 (그레고리오)
전주 남부시장 B동 87호
(전화 ⑥ 6691 교활 85 번)

